

광주·전남 대학 수시 마감 취업률 높은 학과 쏠림 심화

전남대 7.29대 1 경쟁률 1위
호남대·조선대·광주대順
보건·의료·신생학과 인기

2020학년도 광주·전남지역 대학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전남대와 호남대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계열을 포함한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15일 광주·전남 4년제 대학들에 따르면 전남대는 3083명 모집에 2만 2478명이 몰려 평균 7.29대 1(이하 잠정)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광주·전남지역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해 1위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18명을 모집하는 치의학전과대학원학·석사 통합 과정에 490명이 몰려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호남대는 1624명 모집에 1만 546명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로 광주·전남 사립

대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로써 호남대의 수시 경쟁률은 2015~2017년 광주·전남 사립대 1위, 2019년 국공립 포함 광주·전남 1위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조선대는 3680명 모집에 1만 9982명이 지원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의예과(43.8대 1), 의예과(32.5대 1), 간호학과(18.2대 1), 작업치료학과(11.55대 1) 등이 고공 행진을 보였다. 신설학과인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의 소방재난관리학과는 7.71대 1의 인기를 끌었다. 광주대는 1710명 모집에 8793명이 지원해 5.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간호학과(9.9대 1)·소방행정학과(9.1대 1)·뷰티미용학과(9.08대 1) 등 취업 연관성이 높은 학과가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여대는 940명 모집에 4801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항공서비스학과(11.7대 1)는 광주·전남 동일학과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끌어 승무원양성의 사관학교임을 입증했다.

남부대는 724명 모집에 3632명(5.02대 1)이 지원한 가운데 응급구조학과(8.7대 1), 물리치료학과(7.7대 1) 등의 경쟁률이 높았다. 동산대는 1573명 모집에 7581명(4.82대 1)이 지원했다. 광주·전남 유일의 한의예과는 15명 선발에 534명이 지원해 3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군사학과(16.3대 1)의 순이었다. 송원대는 659명 모집에 3329명(4.8대 1)이 지원했으며 간호학과(10.6대 1)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철도경영학과·철도운전시스템학과·철도건설환경시스템학과 등 철도 관련 학과도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권에서는 목포대가 5.24대 1로 전남지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초당대는 6.08대 1의 경쟁률로 전남지역 4년제 대학 최고 지원율을 보였으며, 항공서비스학과(10.64대 1)·간호학과(10.02대 1)·치위생학과(8.87대 1) 등의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우리쌀 사랑해 주세요 농협전남·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이 15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브랜드쌀을 홍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 동림동에 치매안심센터 개소

광주시 북구가 보건소에 임시로 설치·운영했던 치매안심센터를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정식 개소한다. 북구는 "16일 오후 2시 개소식과 함께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 공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북구 노인복지센터, 동림동 북구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해 지상 4층(1300㎡) 규모로 검진실, 교

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컴퓨터·가족카페 등 전에 없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요 업무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배회 인식표 제공 등 치매환자 지원사업이다. 또 센터장을 포함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5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북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북구 보건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두암보건지소를 권역별 센터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관계자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MUDEUNG PARK HOTEL & RESORT | 호텔무등파크

새롭게 리뉴얼된 객실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여유를 느껴보세요

호텔과 레저, 휴양시설이 한 곳에

- 무등산을 품은 자연 환경
- 가족 모두를 위한 부대시설
- 온천 사우나 운영
- 모던하고 쾌적한 객실
- 품격있는 스카이라운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14-10
문의 062-226-0011 www.hotelmudeungpark.co.kr

발달 장애인 범죄 꾸준한데...광주·전남 전남 변호사 한명도 없다

광주·전남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이 매년 십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81건(피해 56건)에 달했다. 전남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4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128건이 접수됐다. 18개 전국 센터(중앙센터 포함) 중 광주는 부산(138건), 대전(120건), 대구(11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며, 전남은 14번째였다. 보조사·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변호사 2명 재직)를 제외하면 광주·전남 등 17개 지역센터에는 재직 변호사가 없었다.

이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만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은 공공기관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33개국 통용 영문운전 면허증 오늘부터 발급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서

캐나다와 영국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 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

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월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이 추가돼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박진표 기자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5	달돋이	20:00
해질	18:39	달질	07:46

'안갯길' 운전 조심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22/28	보성	흐리고가끔비	20/26
목포	구름많음	21/27	순천	흐리고가끔비	23/29
여수	흐리고가끔비	22/27	영광	구름많음	20/28
나주	구름많음	20/29	진도	구름많음	21/26
완도	구름많음	21/27	전주	구름많음	21/29
구례	흐리고가끔비	22/29	군산	구름많음	20/28
강진	구름많음	21/28	남원	흐리고가끔비	21/28
해남	구름많음	19/28	혁신도	구름많음	20/23
장성	구름많음	20/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5
남부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남해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동~동	1.0~2.5
서부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41	03:30
	20:49	15:40
여수	04:01	10:11
	16:07	22:27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19/28	18/28	16/27	16/26	16/25	16/25	16/25

◇ 생활지수

위험	보통	보통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북녘 가족 끝내 못 만나고 비전향 장기수 서욱렬씨 별세

국내 최고령 비전향 장기수 서욱렬(사진)씨가 끝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2세. 15일 '장기수 금양심수 서욱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노환으로 투병 중이던 서씨가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병원 중환자실에서 별세했다. 1928년 신안군 안좌면에서 태어난 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인민군에 편입돼 북으로 갔다. 김일성종합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교원이 됐고, 같은 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만나 1955년 결혼하고 두 아들을 뒀다. 1961년 8월9일 아내와 두 아들(당시 5살·3살)을 북에 남겨 놓은 채 북한 공작원으로 고향을 방문했다가 월북하던 중국 거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부터 1990년 9월까지 29년간 북역하다 석방됐다. 북역 중 전향을 강요 당하며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